『창세기 14회: 창세기 15:1-21』

1.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15:1-6)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일단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람을 진정시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진정시키는 효과와 함께 격려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두 본문에서 자녀 없는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곧 아들을 갖게 되리라는 고지를 받습니다.[1]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방패(후원자)"이고, "너의 상급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2]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람은 상급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식이 없다!"라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람의 소유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아브람의 후손이 없다면 결국 쓸모없는 일이지 않느냐는 반문입니다.[3] 이어서 아브람은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람이 엘리에셀을 향해 "상속해주고 싶어요!"라는 마음에서 비롯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주인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집안일을 담당했던 하인 중 한 사람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4] 히브리어로 상속자는 메세크입니다. '메세크'-'다메세크'가 언어유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언어유희를 사용해 하나님께 상속이 이방인에게 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5] 아브람은 자식이 없는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처럼 삶에 실현되는 이야기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나의 삶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약속이 지연되는 문제입니다. 지연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을

---

1)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0),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 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471.
2)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472.
3) Kenneth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27-50:26*(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5), 권대영 역, 『창세기 2』(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205.
4) Allen P. Ross, *Creation and Blessing*(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김창동 역, 『창조와 축복』(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456.
5) Kenneth Mathews, 『창세기 2』, 207.

가장 좋은 때에 이루려 하시는 것이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약속의 실패로 느껴지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지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현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으셨잖아요!"라고 볼 멘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하에서는 그것을 배워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아브람에게 계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 15:4-5)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약속을 웅대한 말로 바꾸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입니다.[6]

좌절된 약속으로 마음이 상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상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번만 나의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하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이때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6절에서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표현은 아브람이 '방금' 말씀을 믿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을 믿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7]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믿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믿음에 다음처럼 반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를(아브람이 보인 믿음의 태도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 15:6하반절)

'여기셨다'(하샤브)라는 단어는 '셈하다, 가치를 매기다, 계산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8] 의(쩨데

6) Peter J. Gentry, Stephen J. Wellum, *Kimdom through Covenant*(Wheaton: Crossway, 2012), 김귀탁 역, 『언약과 하나님 나라』(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360.
7) 동사 "웨헤에민"(믿으니)의 구문은 과거 시제 내러티브에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패턴을 바꾼 것이다. 구문이 가진 설득력은 과거부터 반복된 지속 중인 믿음을 담고 있는 것이다. Kenneth Mathews, 『창세기 2』, 208.
8)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 479.

크)는 충성이라는 의미입니다.[9]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을 다시 쓰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믿음에 충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람은 이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는 아브람의 믿음에 충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지연, 믿음의 좌절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이를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전과 같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이 말씀을 믿을 만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경험도 안 된다고 말하고, 너의 이성도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을 택하는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은 '충성스럽다, 의롭다'라는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성도의 충성은 '다시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후에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논증합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믿음 때문에 구원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죄 판결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과 행위가 부패하여 심판의 대상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의로운 기준을 충족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하십니다.**[10] 믿음은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 것으로 삼는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판결하시고, 영생과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의'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이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의 의로움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낯선 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현실의 간격을 경험합니다. 마치 아브람이 말씀과 현실의 간격을 경험했듯이 말입니다.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씀과 자녀가 없는 현실은 분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유사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

9) Kenneth Mathews, 『창세기 2』, 209.
10)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Kampen: 1895),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4』(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246.

에게 “귀하다, 의롭다,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말씀이 말하는 바와 같은 귀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죄를 짓고, 연약하고, 흠도 많습니다. 현실에서 죄짓고 연약한 나를 향해서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선언할 뿐입니다. **현실과 말씀은 완전히 대조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 전심을 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근거로, 심판대에서 구원 받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불임이었기에, 현실에서 사래를 통해 이삭을 낳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람도 (지속적인) 믿음으로, 우리도 (지속적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에서 짓는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진리를 즐거워하고,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때가 되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믿음을 자신과 타인, 세상에 드러냅니다.[11)]

2. 언약과 예언(15:7-21)

7절에서 두 번째 환상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오라고 아브람에게 지시하십니다.

해가 지자 아브람은 깊은 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이 든 아브람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창 15:13-16)

11) Herman Bavinck, 『개혁교의학4』, 224.

하나님께서는 땅에 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아브람에게 설명해주십니다. 아브람의 자손들만, 400년 후에 땅을 소유하리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12] 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신앙을 지나치게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에 따르면, 인간의 신앙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존적 신앙관과 역사적 신앙관입니다.[13] 실존적 신앙관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지?'에 관해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어린 신앙이고, 하나님에 관한 이해도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신앙관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지?'에 관해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늘 구원하시고, 길을 여셨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 다윗, 노아, 다니엘, 베드로, 바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곧 나의 조상들의 삶과 신앙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인식 속에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에 관해서만 생각하고, 그러니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관점이 지극히 협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처음 듣는 청중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입성을 마주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출애굽하였다는 사실에 전율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는 사실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율하고 고양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역사적인 신앙관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을 들으면서 그다지 놀랄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에 간섭하신 일들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약속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17절)

아브람에게 주어진 환송에서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연기와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관한 상징입니다.[14]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 언약 체결 의식은 언약 당사자들이 언약 관계와 약속들에 신실하지 못하면 그들 자신이 죽음의

12)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 491.
13) 박영선, "박영선목사의 설교이야기(1) | "구원" | KAPC 목회와 신학 포럼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DAJD0leKzVc, 2022-04-29.
14) 하나님의 사자는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출3:2).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고(출 13:21),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연기와 불로 나타나셨다(출 19:18, 20:18).

저주를 받겠다는 맹세를 포함합니다. 반으로 쪼갠 짐승 사이를 걷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나의 약속과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이 죽은 짐승처럼 되길 바란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말씀(땅과 자녀)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저주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15]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관해 신실하십니다.

레이 반더 래안은 창세기 15장의 언약 체결 의식을 다음처럼 해설했습니다.

『"나를 위해 암소와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서 이 짐승들을 제물로 바치고 흘린 피가 양편에 뿌려졌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을 세우려고 하나님은 타는 횃불의 형태로, "맨발로" 짐승들 사이에 있는 피의 길을 걸으셨다.

생각해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맨발로 피바다를 걸으셨도다!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불쾌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위엄으로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표현하셨다. 그분은 전통적인 근동 지방의 언약 체결 의식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행하고자 하신 것을 그 당시 지역과 문화의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내가 이 언약을 너와 네 자손을 위해 참으로 이루겠다고 약속하마. 너와 맺은 내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해하도록 즉시 정성을 다할 것이다."

... 하나님은 자신의 선민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실 것을 표현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것을 아주 먼 나라의 어떤 떨어진 역사의 조각처럼 보기 때문에 종종 우리 역시 하나님이 그 바위 많은 평지 헤브론 근방에서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의 긴 계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온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은 광야의 먼지 속에서 아브라함이 죽인 짐승들의 피 사이를 걸으셨을 때,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 -믿음의 가문에 속한 모든 자-과 언약을 맺으셨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명한 조상들 곧 다윗과 히스기야 베드로로부터 무수한 무명의 신자들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로부터 초대 교회 이후의 기독교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거치며 면면히 이어진 긴 계보의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네게브의 먼지와 모래 속에서 관계를 세우신 자

15) Peter J. Gentry, Stephen J. Wellum, 『언약과 하나님 나라』(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362-363.

들의 공동체에 속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분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 일반적인 피의 언약에서 각 당사자는 자기와 관련한 약속을 지키는 책임만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양편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아, 어떤 이유로든 – 나의 신실하지 못함이나 너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 이 언약이 깨진다면, 그 대가는 내가 치르겠다. 너 또는 너의 자손들이 이 언약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나는 피로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다.』[16]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교제하고 사랑하려 하십니다. 나머지는 전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신실하십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잘못을 범하고 죄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측의 악함과 실수, 잘못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의 잘못까지도 해결했다. 그러니 나와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16) Ray Vander Laan with Judith Markham, *Echoes of His Presence: Stories of the Messiah from the People of His Day* (Colorado Springs: Focus on the Family, 1996), 8-9, Peter J. Gentry, Stephen J. Wellum,『언약과 하나님 나라』, 371-372에서 재인용